

여유로운 감성을 찾아 떠나는

‘보넛길’

전국적으로 ‘000길’이 유행하는 요즘,
고양시 정발산동에 더 특별하면서도
이름마저 예쁜 ‘보넛길’이 있다. 아기들에게
씩씩주는 모자 ‘보넛’을 중심으로 각종
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로 거리가
꾸며지면서 자연스럽게 보넛길로 불리었고
점차 그 이름이 굳혀졌다. 풍산역에서 멀지
않은 밤가시마을 8단지과 9단지 사이에 있고
개성 넘치는 공방, 카페, 맛집을 중심으로
기존의 고양시와는 또 다른 소소하고
감성적인 매력을 자아낸다. 여유로운 감성의
보넛길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글/사진 백지민(고양시 관광서포터즈)



B o n n e t R o a d

세계여행을 하는 듯한 식도락 여행



보넛길은 일산 속 작은 지구와 같은 분위기
를 자아낸다. 걷다 보면 세계여행을 하
는 듯한 느낌으로 다양한 나라의 개성 있
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
스, 이탈리아, 미국 등의 양식당뿐만 아니
라 태국, 베트남 같은 아시아음식점과 다
양한 퓨전음식점이 있다.

풍산역 근처인 산들로 142번길에는 태국
대표 음식인 푸팟퐁커리를 먹을 수 있는
태국 전통 음식점이 있다. 태국풍 인테리
어 속에서 먹는 푸팟퐁커리와 태국 맥주
한 병은 그 분위기에 더욱이 취하게 만든
다. 반대편에는 LED로 눈길을 끄는 베트
남 음식점이 있다. 다양하고 깊은 맛의 베
트남 요리는 보넛길로 다시 찾게 하는 매
력 중 하나다.

또한, 일산로 8번, 372번, 380번길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의 차이나
타운의 분위기를 물씬 내는 식당이 자리

“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 ‘소확행’.
고양시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보넛길에서
즐기는 진정한 소확행
여행을 추천한다.

”

잡고 있다. 오픈キッチ의 구조와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원테이블 이탈
리아 식당, 합리적인 가격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정통 프랑스 가정식 전문점, ‘미국
에서 중식을 먹는다면 이런 기분일까’라
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메리칸 스타일
의 중식당이다.

골목마다 예쁜 카페, 소품점, 공방



식도락 여행을 즐겼다면 보넛길 속 문화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원데이 클래스

를 운영하는 공방(예술가, 직공 등이 물건
을 제작하기 위한 방 혹은 작업장)에서 나
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작품을 만드는데 몰두하다 보면 일상 속
고민은 어느새 까마득히 잊히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앤틱 가구 및 빈티지 소품
점들을 구경하며 쇼핑을 즐길 수도 있고
매년 열리는 벼룩시장에서는 예쁜 상품
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현실을 떠나 환상 속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일산동구 대산로 11번길에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쁜 카페가 있다.
파스텔 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추억에
잠기도록 하는 애니메이션 OST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가 반긴다. 일산로 372번길
에서는 다양한 수입 캐릭터 소품들을 살
수 있다. 어른들에게는 순수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고 아이들에게는 풍부한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놀이터가 되지 않
을까 싶다. 🌈

보넛길



보넛길 디저트 카페



보넛길 베트남 음식점

